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자리에 1000병상 새 병원 건립

이사회 최종 결정... 5000억원 투입 지상 12층 2028년 완공 목표 본관 건물은 철거후 최첨단 연구시설로...장례식장은 운영 중단

조선대병원이 병원 장례식장 부지 일대에 새 병원을 건립한다. 지은 지 52년 지나 노후화된 조선대병원 본관 건물은 철거하는 대신 그 자리에 최첨단 연구시설이 들어선다.

27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조선대 이사회는 최근 새병원 건립 관련 회의를 갖고, 병원 장례식장과 의대 교수 연구동인 의성관 일대 부지에 새병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조선대병원은 1971년 개원(본관) 이후 2007년 2관인 전문진료센터, 2017년 3관인 외래진료센터를 증축하는 등 크고 작은 여섯 번의 증축을 단행했다. 하지만 본관 건물이 노후해 의료시설로서 쾌적성이 떨어지는데다 본관-2관-3관으로 이어지는 병원 내부-동선이 복잡한 탓에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에서 새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선대병원은 수년 전부터 새병원 건립 후보지로 조선대 정문-공과대학 일대, 조선대 부속고등학교 일대, 기존 병원 부지 등을 검토했다가 최근에는 기존 병원 부지와 정문 일대 부지로 압축한 상태였다. 이사회와 조선대병원 측은 기존 2·3관 및 감염병 전담병원과의 연계 활용성, 지하철도를 통한 시민들의 접근성, 비용절감 등을 고려해 정문 부지 대신 장례식장 부지를 새병원 건립지로 선택했다. 착공은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시작하며, 완공은 2028년이 목표이다.

새병원은 4000~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0000㎡(9079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8000㎡(2420평),

지상 12층·지하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새병원이 건립되면 병실은 현재 849병상에서 총 1000병상(새병원 700, 2·3관 200, 감염병전문병원 100병상)으로 늘게 되며, 주차장도 1000대 수용 규모에서 2500대 정도로 여유가 생겨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병원은 먼저 1단계로 장례식장 일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을 완료한 뒤, 본관의 주요 의료시설을 이전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병원 본관을 철거한 자리에는 건물을 증축해 새병원과 2·3관의 연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본관을 철거한 자리의 부지가 여유가 있는 만큼 병원의 미래 수요와 장기발전을 위해 본관 자리에는 의료연구 및 지원시설을 증축한다는 계산이다. 이 외에 일부 공간은 철거 대신 리모델링을 통해 게스트하우스나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새병원 건립을 위해 철거된 장례식장은 향후 다른 자리로 옮기지 않고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장례식장은 한때 병원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준 효자 시설이었으나 지속된 물가상승 및 인건비 등으로 현재는 운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장례식장이 조선대병원의 브랜드 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비용을 제대로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새병원은 최첨단 스마트병원을 표방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자연친화 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벌써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새병원 건립에 대한 구성원들의 열망과 지역민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병원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들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김경중 조선대병원장이 1억원을 건립기금으로 기부하는 등 교수진과 직원, 동문들의 발전기금 기부도 줄을 잇고 있다.

김경중 병원장은 "새 병원 건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100년 병원을 향한 생존의 문제"라면서 "장례식장 일대 부지는 위치상 무등산 전망과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며, 기존의 시설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추후 환자 수요 증가에 따른 확장이 필요할 때에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알맞은 장소이다"고 설명했다.

김 병원장은 또 새병원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과 관련해 "병원 자체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구

성원과 동문들의 기부금, 또 금융권으로부터 조달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면서 "새병원 건립을 통해 최첨단 의료 장비와 최고 의료진을 구축, 반세기 이상 보내주신 지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 내년 마을공동체 400곳으로 확대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30일까지 시·군서 모집

전남도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민선7기 때부터 추진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2023년부터 더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을 도입한 전남도는 50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602개 마을공동체를 육성했다. 2023년부터는 이 사업 외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와 '지역 행복플랫폼 운영'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해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소멸해가는 마을에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자립형 마을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2023년 400개 내외 공동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30일까지 시·군에서 모집한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적 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주도적으로 서로 돌보며 건강을 챙기는 '마을돌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0~150개 지원을 통해 500개 돌봄공동체 육성을 목표로 한다. 매년 최대 1000

만원을 지원해 사업 종료 후 사업평가를 통해 최대 5회 지원한다. 2023년 지원 마을을 오는 30일까지 시·군에서 모집한다.

지역 행복플랫폼 운영 지원사업은 지역 유희시설을 활용해 주민사랑방, 교육공간, 공동작업장·빨래방 등 주민 소통창구로서 거점공간을 마련해 공동체 활동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2월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격려하고 성과 공유를 위해 매년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2022년 10개 우수사례를 선정해 지난달 8일 고흥팔영체육관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했다.

최병남 전남도 사회경제적재장은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 전남마을행복디자인어 양성·교육, 공동체 거점 공간 마련 운영 지원 등 지속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이 되고 지역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먹거리 종합계획' 민관협의체 가동

생산·상생 등 4개 분과 70여 명

광주시가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광주시 먹거리 종합계획' 민관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광주시는 27일 청사 무등홀에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분과협의회 워크숍을 열고 푸드플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분과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분과협의회는 생산·상생, 유통·가공, 안전·환경, 공공 급식·복지 등 4개 분과에 민관 70여 명으로 구성됐다.

각 분과별로 광주시민의 특색있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정책제안을 받고 있으며, 연구용역 기간인 내년 7월까지 수시로 분과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남도 의병 관련 역사자료 2694점 확보

이기정 씨, 평생 수집 346점 기증

전남도가 오는 2025년 6월 개관 예정인 남도의 병 역사박물관에 전시될 각종 유물 2694점을 확보했다. 소장 가치가 높은 유물 415점을 구입하고, 1484점은 기증·기탁받았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이기정 기증자가 평생 수집한 의병·독립운동 관련 자료 346점을 선뜻 내놓으면서 유물의 질적 가치를 크게 높였다. 이기

정 기증자는 의병 이소용, 이근원(이항로 제자) 등의 간찰·시문·제문 등 구하기 어려운 소중한 자료를 기증했다. 또 불갑사 만당 주지 스님은 이괄의 난(1624)이 발생했을 때 호남 의병이 앞장서 난을 진압한 기록이 담긴 '호남모의록'을 기증했다.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기에 앞서 실시한 '남한 폭도 대토벌작전(1909년 9-10월전남 의병 초토화 작전)' 사진첩도 구입했다. 자료에는 진압 작전에서 체포된 주요 호남 의병의 사진과 명단이

대거 수록돼 있다. 당시 상황과 사용했던 무기 등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 환도(環刀), 소총, 투구 등 무기류 47점도 구입했다. 유물은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개관 시 다양하게 연출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5년까지 남도 의병과 관련된 유물 총 4000점을 구입할 계획이다. 구입 대상은 을묘왜변(1555년)부터 3·1운동(1919년) 이전까지 의병의 문집이나 편지, 지도, 사진을 비롯한 무기류, 의복, 생활용품 등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의병 관련 일체 유물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